

코스피 7000선 올라섰지만… 예탁금 줄고 빚투 늘었다

투자자예탁금 97조4911억 기록
약 3개월 만에 39조 넘게 감소
연휴 수급 공백·미중 회담 등 변수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7000선을 뚫었지만 증시를 떠받칠 자금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100조원 아래로 줄어든 반면 신용거래용자는 33조원을 넘어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마저 사흘에 그쳐 얇아진 수급이 지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7000선을 탈환했다. 지난 18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78% 상승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삼성전자 전 거래일보다 4.21% 오른 27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6600선까지 밀렸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모습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금리 상승, 국제유가 급등에도 인공지능(AI) 투자와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난 덕분



한강 너머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코스피 7000선의 등락과 추석 연휴 전후 증시의 불안한 자금 흐름을 표현했다. 21~23일 사흘만 열리는 증시와 함께 줄어드는 투자자예탁금, 늘어나는 빚투를 파란색 하락 화살표와 빨간색 상승 화살표로 나타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다.

다만 지수 반등과 달리 증시 대가자금은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가장 최근 집계일인 지난 17일 97조4910억7300만원을 기록했다. 하루 전보다 2조원 넘게 줄며 다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6월 23일 136조8313억67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39조원 넘게 감소했다. 월평균 예탁금도 7월 109조7000억원에서 8월 102조1000억원, 이달 들어 17일까지 100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예탁금이 줄어드는 사이 '빚투'는 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17일 33조730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이 25조9507억원, 코스닥시

장이 7조1223억원을 차지했다.

신용거래용자의 월평균 잔고는 8월 30조9000억원에서 이달 33조원 수준으로 약 2조원 늘었다. 지난달 초 27조원대까지 줄었던 잔고가 지수 반등 과정에서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단기 차입 성격이 강한 미수거래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137억7400만원,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4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매매 비중은 2.4%였다.

시장 전반의 대가자금은 줄어든데 일부 투자자는 빚을 늘려 상승 종목을 추격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잔고가 높은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늘어나 낙폭을 키울 수 있다.

명절도 변수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만 문을 연다. 거래일이 짧은 데다 주요 대외 일정이 연휴 기간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망심리 확산과 거래대금 감소, 얇아진 호가 및 수급 공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휴로 인한 일시적

인 현상인 만큼 단기 변동성을 시세의 본격적인 변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연휴 이후 증시 방향을 가늠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과 AI, 첨단 반도체,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 반도체 규제의 방향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국제금리와 국제유가도 부담이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장중 5%를 넘어선 뒤 해당 수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 전후 5거래일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각각 -0.42%와 0.68%였다고 분석했다. 연휴 전 수급 공백으로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연휴 이후 반등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감원, 증권사에 투자자 보호 강화 주문

“회사 배 불리는 영업 관행 개선”
CCO 재의요구권 확대 등 요구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과 수수료 전가 등 투자자보다 회사 이익을 앞세우는 증권사의 영업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고위험 금융상품은 기획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과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더 이상 보여주지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에서 위법한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부통제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영업 현장의 위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투자자 다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보호 절차도 재점검하도록 했다. 핵심성과지표(KPI)에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해외주식 이벤트·광고와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출시 이후가 아닌 설계·제조 단계부터 위험 요인과

이해상충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를 점검한 결과,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관련 임원에게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하라고 주문했다. 신규 상품의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를 정할 때 CCO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금융당국, 미성년자 미수거래 막는다

거래소·협회 규정 정비 검토
미성년자 미수금 반년 새 67% 증가

미성년자의 미수거래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제한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금지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다시 늘어나는 신용용자 등 증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부족한 대금을 채우는 거래다.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당국은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데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이용해 고위험 투자에 나설 경우 미성년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미성년자에게 레버리지 상품과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를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지목했다.

실제 미성년 투자자의 미수금은 증가세다. 국내 10대 증권사의 만 20세 미만 투자자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000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66.7% 늘었다.

증권사들은 제도화에 앞서 선제 조치에 나섰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신규 신청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차단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제한을 적용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업계 전반에 관련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사의 자율 조치와 별개로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에 다시 불어나는 ‘빚투’ 관리에도 나선다.

/허정윤 기자

KB운용, 펀드·ETF 상품정보 한곳에

통합 홈페이지 새단장

KB자산운용은 펀드와 RISE ETF 상품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관련 투자 콘텐츠를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펀드와 ETF 홈페이지 통합이다. 최근 ETF 시장 성장과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를 반영해 첫 화면을 RISE ETF 중심으로 구성하고, 펀드와 ETF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펀드와 ETF 상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명뿐 아니라 편입 종목, 투자 테마 등 연관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다. 펀드와 ETF 페이지 간 이동도 간소화해 관심 상품과 관련된 투자정보를 연이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AI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도 새롭게 강화했다. 대화형 AI 서비스 ‘RISE AI’를 통해 상품 정보와 시장 동향을 질문할 수 있으며 분배금, 추적오차 등 투자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

다단계·협동조합 가장한 유사수신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22일 다단계 방식과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다단계 유사수신 관련 민원은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은 10건이다. 금감원은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다단계 유사수신회사는 차장·팀장·점

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만들고 하위 투자자 수나 매출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높은 소개 수당을 앞세워 기존 투자자를 신규 회원 모집책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초기에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다. 신규 자금 유입이 끊겨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 업체가 폐업하거나 주동자가 잠적한다. 먼저 투자한 사람도 가족과 지인을 끌어들

었다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업체들은 리조트와 소풍물, 렌터카, 가상자산 등 투자자의 관심을 끌 만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매일 수익을 지급하거나 거래소 상장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연 15% 이상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모집 완료 시 종료” 등의 문구로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허정윤 기자